종교자유 불심 빛났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울 불자 2만5000명 적극 동참

사회부장 혜경 스님(사진 가운데)이 주민발의 성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서명이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목표인원을 무사히 달성했다.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와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주민발의 성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5월 16일 한국역사불교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서울시는 주민발의를 위한 최소 인원을 지역 유권자의 1%인 8만 185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가 받은 서명은 8만5000여명이다. 이 중 2만50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게재 등 유효 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만1000여명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오던 중 서명 종료 시한을 한 달 정도를 남기고 대불청과 협의를 가졌다. 당시 서울본부측은 주민발의를 위한 목표 인원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달여의 짧은 시간 동안 대불청과 불교계는 불자들에게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알려 목표 인원을 채울 수 있었다.

대불청은 이사회를 통해 주민발의 서명 운동 동참을 결의하고 정우식 회장이 서울 지역 36개 사찰을 방문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직할교구 서울지역 사찰에 협조 공문 및 서명용지를 발송하고 일요법회 때 불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전을 펼쳤다.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취합된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명부를 검토 후 요건에 미흡한 서명인 여부를 확인한 뒤 교육청 의견을 첨부해 서울시의회에 전달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 본회의에 제출한다.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르면 10월 경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발의 원안은 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심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원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심의 모니터링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불청은 또 이번 주민발의 서명 성공을 계기로 특정 종교 강요 사태 방지를 위해 조례제정 전국 확산에 나선다. 이미 경상남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불청 전국 각 지부와 지회를 통해 이번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이번 일은 주민발의의 성공적 케이스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지역 불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부장 혜경 스님은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이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박 기 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따뜻한 도시락에 부처님 마음 담아요"

김완희 능인복지관 사랑 나눔회 회장

김완희(사진 · 63) 회장과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사랑 나눔회'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아침 9시면 복지관 주방에 모여 숙달된 솜씨로 맛있는 반찬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찬은 따뜻한 도시락에 담겨 능인복지관이 지원하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다들 봉사도 꾸준히 하고, 주부 경력도 오래된 분들이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힘든 것도 잊고 정도 쌓입니다."

사랑 나눔회 회원들은 집에서 서로 음식을 만들어와 나누어 먹기도 하고,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도 교환한다. 이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만든 반찬은 영양은 물론 사랑도 듬뿍 담겨 맛이 일품이다.

더구나 지금은 도시락을 배달하는 팀이 따로 있지만 몇 해전까지는 사랑 나눔회 회원들이 직접 배달도 맡았다. 그래서 '사랑나눔회'는 그 분들이 행복해하고, 도시락을 먹고 건강해질 모습을 상상하면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김완희 회장은 작년 봄에 강북으로 이사를 갔다. 봉사가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복지관에 와야 한다. 출근 시간과 겹쳐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지만 긍정적인 성격의 김 회장은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젊은 시절 약대를 다녔던 김완희 회장은 학창시절부터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결혼 후에는 아기를 키우면서 이웃 집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책을 읽어주면서 돌봐주기도 했다. 맹인들을 위한 도서 녹음 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김 회장에게 봉사는 삶의 일부분이다.

"봉사활동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복지관이 능인선원과 연계돼 있어 불자로서 마음도 더 편하고 불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을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김완희 회장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성격도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법회도 더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법문을 주변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집착없는 선행과 선심을 강조한 말인데,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군림하지 않고 자신을 낮춘 부처님의 모습이 봉사의 정신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본받으며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박기범 기자

포교원, 장애인 전법단 출범

장애인 합동수계법회 및 편의시설 설치 추진

사회 취약분야에 대한 법회지원을 위한 장애인전법단이 출범했다.

2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장애인전법단 출범식을 개최한 포교원(원장 혜총)은 장애인불자 모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법단은 지거 스님(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을 단장으로, 세영 스님(신륵사 주지),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 현각 스님(성불원 대표)을 자문법사로 구성했으며, 장애인 복지와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 22명을 지도법사로 임명했다.

장애인 지원전법단에는 장애인 불자모임 '보리수 아래' 최명숙 회장, 엄재면 원심회 회장, 장애인 복지기관 및 장애인 신행단체 실무대표자 18명을 위촉했다.

전법단은 장애인 포교를 위해 △불교장애인복지 개념 및 사상 정립 △장애인포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장애인 정보화 증진 △조계종 및 사찰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확대 등을 중장기 과제로 삼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법단은 장애인법회 거점사찰을 선정해 지역별 합동법회를 열고 기초교리교육과 장애인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하는 등 불자장애인 신행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법단은 계단 및 법당 난간에 비탈길을 설치하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이동 및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포교원 측은 "향후 전법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활동비를 지원하고 필요시 각 기관에 포교원 명의의 협조공문을 시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불교 생명·복지 한자리서 고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6일, 전법회관 6층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5월 26일 오후 2시 전법회관 6층에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이정호 상무이사(인드라망 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 '불교생명운동과 불교사회복지의 연대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정호 상무이사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기초한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불교생명운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의 다양한 콘텐츠를 불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포교원, 신도단체 임원연수

28~29일 전통불교문화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신도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실시한다.

행사는 5월 28~29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신도연합단체와 직장직능단체의 중앙, 지부 · 지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자성과 쇄신 결사 공유 △신도단체 현황 및 조직 활성화 방안 △포교종책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자성과 쇄신결사의 실천을 위해 신도단체 및 직장직능단체들의 종단적 정체성 확립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라미타, 장보고 길따라 문화탐방 실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는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과 함께 8월 6~12일 '제2회 장보고 길따라 문화탐방 및 청소년국제교류'를 실시한다.

문화탐방 및 국제교류 행사는 청도에서 녹차밭 체험, 중국학생 가정방문 및 저녁식사, 청조맥주공장 견학, 위해시 적산풍경구 및 적산 법화원 방문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참가희망자는 파라미타 회원 중학교 1학년 이상 가능하다. 문화탐방은 현직 지도교사로 진행팀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 청소년 15명당 지도자 1명이 인솔한다.

참가비는 체재비, 왕복선박료, 비자, 여행자보험, 프로그램 포함 47만원이다. 접수는 5월 31일까지 (02) 723-6165

이상언 기자

문화 탐방 전 충실한 교육부터

우리는 선우, '현장법사의 실크로드 탐방'

불교지성인을 위한 신개념 실크로드 탐방 패키지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와 포교전략연구소에서는 세계역사문화탐방 시리즈로 '현장법사의 실크로드 탐방'을 실시한다.

문화탐방은 8월 23일~9월 1일 중국 서부 서안, 난주, 돈황, 투르판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6월 1일~7월 13일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6월 15일~7월 6일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불교와 도교의 만남 서유기' 정규과정과 집중과정 강의가 진행된다.

(02)2278-8672 이상언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바자회 실시

6월 2~3일 나무 갤러리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 불교여성광장(AGORA) 건립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바자회 물품은 여성불자 108인의 작품 및 소장품들로 악세서리, 노리개, 도자기, 불교용품, 화장품, 의류, 장류, 밑반찬류 등이다.

바자회 수익금은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및 여성불자들을 위한 교육 및 역량을 결집할 통합공간인 '불교여성광장(AGORA)' 건립에 쓰인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